

# 나주시, 문중 유물 수집 '나주학' 본격 연구

### 진주강씨·홍성장씨 의병장 관련 문서 기증 받아 가치 규명 작업 지난달 조례 공포...역사문화도시 지역자산 종합·체계적 조망

나주시가 나주학 연구를 본격화하기 위해 문중 소장 유물 수집에 나선다. 나주시는 지난달 '나주학 연구·진흥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나주학 연구의 기초 자료인 유물 수집과 기증 유물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나주학(羅州學)은 역사·문화·경제·산업·생태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다양한 분야의 지역자산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육성하는 학문을 뜻한다. 나주시는 호남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 나주의 정체성 확립과 이에 따른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 수립을 목표로 나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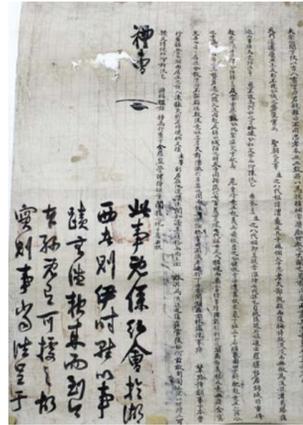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나주학 연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유물수집과 국역, 해제 등 나주학 연구의 기초 토대를 구축했다.

문중 소장의 유물 수집은 본격적인 나주학 연구에 있어 첫 단추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해 '진주강씨 모헌 공중중'과 '홍성장씨 직장공파 의병장 관련 문서'를 각 문중으로부터 기증받아 문서 내용과 역사적 가치 규명을 위한 국역(國譯)과 해제(解題) 작업을 했다. 지난해 7월 나주시가 수집한 진주강씨

문서는 나주학 연구를 위해 문중에서 유물을 기증한 첫 사례다. 나주시에 따르면 진주강씨 문서는 조선 후기부터 대한제국 시기 작성된 것으로 임진왜란 때 아들과 함께 순절한 의병장 강위구 부자의 충절과 효심, 며느리 남평 문씨의 열행에 대한 포상을 요구하는 상서, 이에 대한 예조의 관문, 추증 교지 등 충·효·열 삼강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오랜 역사 속 나주를 지키고 살아온 문중의 고문서를 비롯한 다양한 유물은 나주학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수집된 유물에 대한 국역·해제 성과를 시민에게 공유하고 나주학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on@



진주강씨 문중에서 기증한 고문서.

## 회원 1만명 돌파 눈앞 로컬푸드 수기 공모

### 다음달 2~13일 이메일 접수

나주시는 로컬푸드직매장 소비자 회원 1만명 달성을 기념해 소비자 이용 수기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로컬푸드 회원수는 9411명으로 1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소비자 회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나주로컬푸드 슬로건인 '살수록 살맛납니다'를 주제로 경험, 사례 등 자유로운 형식의 수기(A4용지 2장 분량)를 응모하면 된다.

공모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이며, 시정 또는 (재)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 진흥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모전 서류양식을 작성해 이메일(najulocalpr@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는 주제연관성, 참의성, 문학성, 홍보활용성 등을 심사 항목을 기준으로 3

월 말 수상작을 발표해 나주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나주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은 2015년 11월 25일 개장 이후 누적매출 123억 원을 돌파했다. 또 지난해 10월 직매장2호점인 금남점(금나와라)을 개장했으며, 협력매장인 나주축협, 광주남구, 롯데슈퍼 광주문흥점까지 총 5개소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나주시는 올해 빛가람점 확장 이전을 추진하고, 전남도로부터 위탁받은 광주농성점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반기에 개장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로컬푸드가 갖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먹거리를 매개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가치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on@

## '호남 8대 명산' 나주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 시동

### '나주발전 시준2' 선도 프로젝트 육군 공병부대 전문요원 투입 11월 말까지 지뢰 제거 작업

나주시는 호남의 8대 명산인 금성산의 도립공원 지정을 추진한다. 20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첫 단추로 군부대와 함께 금성산 정상 일대 매설된 지뢰 제거에 착수한다.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은 나주시가 호남의 중심도시 도약을 위해 올해 공표한 '나주발전 시준2'의 7대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다.

'국립 나주숲체원' 조성 공사가 한창인 해발 451m의 금성산은 동쪽으로 무등산, 남쪽으로는 월출산과 마주하고 있다. 나주시는 금성산의 잔여 지뢰를 완전히 제거한 후 도립공원으로 승격시켜 생태환경



강인규 나주시장과 소영민 육군 제31사단장이 지난 5일 금성산 주둔 부대인 519방공포대 관계자로부터 금성산 잔여 지뢰제거를 위한 계획을 보고받고 있다.【나주시 제공】

과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과 소영민 육군 제31사단장은 지난 5일 금성산 주둔 부대인 519방공포대로부터 금성산 잔여 지뢰제거를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설 지뢰는 지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총 3차례에 걸친 육군부대 지뢰제거작전을 통해 1771개를 수거했다. 남은 82개 중 일부는 1970년대 말 화재로 인해 폭발했고, 현재 잔량은 76개로 알려지고 있다.

잔량 지뢰 제거작전은 국방부 예산 2억 4000만원을 들여 육군 제31사단 공병대대 전문요원 30여명이 오는 3월23일부터 11월까지 금성산 정상 일원 지뢰 표시와 철조망 설치 구역에서 진행하게 된다.

나주시는 작전 중 민간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장소 출입 금지, 작업 반경 내 등산 및 산나물 채취 행위 금지, 작업 현장 사진 촬영 금지 등 주의사항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강 시장은 "이번 군부대 지뢰 제거작전은 나주의 진산(鎭山)인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의 첫 관문"이라며 "산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수목 훼손을 최소화하고 군과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나주교육청, 새학기 학교안전 현장 점검

나주교육지원청은 신학기를 맞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학교안전현장점검을 실시했다. 20일 밝혔다. <사진> 나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 통학 안전, 미세먼지 대응, 시설안전 등 12개 분야와 통학로, 급식실, 과학실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나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학교 안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나주교육청 제공>

김영길 교육장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 환경속에서 학교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최선의 노력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on@

## 제13기 친환경농업대학 교육생 60명 모집

나주시는 지역 농업발전을 선도할 '제13기 나주시 친환경농업대학'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친환경농업대학은 경쟁력을 갖춘 농산품목에 대한 재배기술, 유통전망, 가공 상품화, 경영요령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고 있다.

이번 제13기 대학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물 등 신소득작물 발굴과 재배기술, 수급 및 소비동향 등을 중점으로 '기후변화대응반', '유기농가능사반' 2개 과정

으로 진행된다. 기후변화대응반은 3~7월(17회·74시간), 유기농가능사반은 3~11월(25회·100시간)까지 교육하며, 교육생은 각 30명씩 총 60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나주시에 실거주하는 농업인 및 농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가능하다. 희망자는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신청양식을 작성해 읍·면 농업인상담소나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로 제출하면 된다.

【나주=손영철 기자 ycon@



제12기 친환경농업대학 수료식'

## 나주시의회 올 첫 임시회 폐회...농민수당 등 14건 의결

나주시의회가 지난 17일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첫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나주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상임위원 안전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인의 등 총 14건의 상정, 의결했다.

임시회에서는 지차남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또 황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21대 국회 농민수당 법제화 추진 촉구 건

의안'을 의결, 올해부터 전남도에서 최초 시행하는 농민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해 농민 소득보장을 법제화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특히 박소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물에 녹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아 자연 분해에 500년 이상 걸리는 아이스팩을 관리해야 한다"며 "수거함을 설치해 전통시장 등 아이스팩이 필요한 곳에 전달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on@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